



정교회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루가 제 8 주일

성 요한 크리소스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제5조 • 조과 부활 복음 11)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

제5조 부활 찬양송	82
성 요한 크리소스툼 찬양송	202
성당 찬양송	
성모 입당 축일 시기송	204
사도경 : 히브리 7,26~8,2	
	봉독서 614
복음경 : 루가 10,25~37	128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의 삶을 본받아

성인들의 삶에서 우리는 큰 도움을 받습니다. 성인들이 온종일 엄격한 금식을 한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가 정해진 금식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들의 검소한 삶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물질을 가지지 못했다고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인들이 아침저녁에 또 수시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역시 일주일에 한 번뿐인 주일에 성당 참례는 물론이고,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짧은 기도라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단련에 노력하여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성인들이 영감을 주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로의 가르침대로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테살로니카 전 4,3)

- 소티리오스 대주교 강론 중에서

믿음과 행동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데 전념하도록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선행은 사람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디도 3,8)

사도 바울로는 크레타의 주교이며 그의 제자인 디도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구원의 행위를 상기시키고자와 같이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풍부함을 갖고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므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의 행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으니(에페소 1,13) 그에 따른 선행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로는 진리의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행동은 교리 위에 세워지고 교리는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하며, 믿음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생동하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과 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은 곧 선한 행실이며 그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마태오 5,16 참조)

믿음은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여,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야고보 2,20)

우리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어려운 것을 하려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주변의 것부터 하 면 됩니다.

*** 형제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도록 합시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요한1서 4,20)

*** 가족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합시다.**

어떤 분들은 ‘가족 중 대표만 나가면 됐지’ 하는데, 그러면 천국과 지옥도 대표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성찬예배 시간을 지키고, 건강상이나 다른 긴급한 용무가 없는 한 성찬예배 중 성당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은 ‘성만찬 전에 떠나서 유다처럼 되지 맙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동과 일치해야 하며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전하게 되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야고보 2,17)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마태오 7,24) 그러니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도록 합시다.

보이지 않는 전쟁

성 니코디모스 아토스산 수도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하튼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지휘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백인대장(고대 로마군대에서 병사 100명을 거느리던 지휘관)들을 거느리고서 나타나십니다.
곧, 모든 ‘천군천사들, 성인들’과 함께...
이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戰場)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내면의 자아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일생을 두고 지속됩니다...



별침, 이것이 다른 존재에게 주는 피해

아타나시아 봉사자

별은 화살의 축(긴 물건의 끝에 박힌 뾰족한 것)과 같은 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할 때는 이 침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며,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은 상대의 몸 안으로 들어가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뒤 별이 날아올라서 떠나가면 침은 그 장(腸, 창자)의 일부와 함께 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어서 곧바로 별은 이런 부상(또는 불구상태)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별의 공격은 그 어떤 상대에게 어느 정도 해

를 끼칠 수는 있겠지만, 그 대가는 매우 커서 별은 곧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살아갑니다. 지독한 미움, 계속 뿔어져 나오는 원한과 비방...

우리도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그 어떤 ‘희생양’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악의(惡意)가 가져오는 나쁜 결과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주간 예배 안내

* 11월 16일(수)
성 마태오 복음 사도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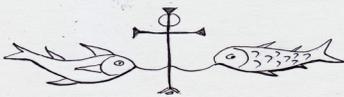
온라인 프로그램 안내

유튜브 (한국 정교회 채널)

매 주일	성찬예배 중계
매주 월요일	성서공부 업로드
검색어	'orthodox korea' '한국 정교회'

줌(zoom) 단체 모임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장년회, 성인 신자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주일학교



소 식

■ 성탄 대림절 시작

오는 11월 15일(화)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엔 아래와 같이 금식을 지킵니다.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며, 세상 구원을 위해 오시는 구세주 우리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11월 15일~12월 17일 : 생선류는 허용되며 육류는 금합니다. (수, 금요일엔 육류는 물론 생선류도 금합니다)

12월 18일~12월 24일 : 엄격한 금식으로 육류와 생선류 모두 금합니다.

■ 부산 성당 결혼성사

지난 11월 5일(토), 소띠리오스 심성원-이이나, 두 분의 결혼성사가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의 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양구 성당 철야 예배 안내

성 안드레아 사도의 축일을 맞아 12월 2~3일(금~토)에 양구 성당에서 철야 예배가 거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숙소 예약과 식사 준비를 위해 서울 성당 사무실로 11월 25일까지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병환자 열 사람 치유 :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현장

표지 사진 설명



하루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 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 가시다가 나병환자 열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크게 소리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하셨다. 그들이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루가 17,11~14)

사마리아 북쪽 지역의 부르킨(Burqin)은 예수님께서 열 명의 나병환자를 치유하신 마을이지만 잘 알려진 지명은 아니다. 팔레스타인의 행정 및 경찰 통제를 받는 A지역에 있다. 1세기에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었던 동굴 위에 '열 나병환자 성당'이라고 명명된 작은 성당이 최초로 세워졌는데, 세계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성당으로 전해진다. 4세기에는 엘레니 모후가 성당(사진)을 재건하였다. 오늘날에는 '부르킨 교회' 또는 '성 게오르기오스 성당'이라고도 불린다. 동굴은 원래 지붕이 없는 물 저장고였지만 나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환자들을 감금한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현재 교회는 나병 환자들이 살았던 동굴과 회중석을 포함하고, 안뜰과 외벽이 추가되어 전체 면적이 1,000제곱미터 정도이다. 4세기에 돌로 만든 주교좌와 성상대, 세례조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팔레스타인 관광부는 2018년 공식적으로 교회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했으며,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